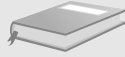


VI. 예배모범



- 제1장 온 생명의 찬양 _ 183
- 제2장 교회의 예배 _ 185
- 제3장 예배의 원리 _ 191
- 제4장 예배의 순서 _ 195
- 제5장 성례전 _ 197
- 제6장 회중모임 _ 203
- 제7장 상황예식 _ 206

제1장 온 생명의 찬양

1. 온 만물과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생명들을 지으셨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과 어둠, 하늘과 땅과 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땅에게 온갖 푸른 움을 내는 식물과 가지가지 생물과 짐승들을 내라고 하셨고(창 1:11, 12, 24), 물에게는 이 모든 생명들을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창 1:20). 그 가운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창 1:27).

그러므로 사람과 모든 생명들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고(시 145:15) 섬기며 노래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2. 온 생명에 가득한 주님의 은총

하나님은 손수 내신 생명 위에 한없는 은총을 내리신다. 생명마다 복을 내리셔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가득히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철 따라 생명들이 살아가기에 알맞은 계절과 날씨를 주시고, 온 사방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주셔서 생명들이 활기차게 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움돋는 새싹에도 복을 내리시니, 생명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와 질서를 따라 평화를 누린다. “목장마다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시 65:9-13).

3. 온 피조물의 찬양과 예배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본다(시 104:27). 모든 생명은 그분이 지으셨으며 그분의 은총과 생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산 생명은

그 생명성을 드러낸다. 생명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숨씨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공은 하나님의 숨씨를 드러내며 낮과 밤이 그분의 지식을 온 누리에 전한다(시 19:1-2).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가지가지 꽃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와 그분의 자녀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알려준다(마 5:25-34).

모든 피조물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시 148:1-14). 찬양은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시 147-13, 시 148:13)는 것을 노래한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4. 하나님의 새 창조

피조물의 죄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생명 세계가 혼돈에 빠지고 탄식하게 된다(롬 8:22). 이때 하나님은 새 세상을 위해 구원을 준비하시고 생명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다. 이 자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총의 자리이다(사 55:1).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심판을 거두시고 자연의 질서를 되살리신다. 그리하여 계절이 제때에 찾아오고, 생명들은 다시 힘차게 삶을 시작한다. 주님은 사람과 생명들을 부르시어 하늘에 무지개를 펼치고 구원의 약속을 맺으신다(창 9:1-17). 이로써 온 땅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시 96:1). 정의와 진리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하늘도 땅도 기뻐한다(시 96:10-13). 이렇게 피조물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주님의 영광스런 자유에 참여한다(사 43:18-21, 롬 8:18-21).

제2장 교회의 예배

5. 예배 공동체인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신도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모여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한다(행 2:46, 47).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례와 하나님 찬양은 곧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삶이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기뻐하는 일은 찬양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은 성찬례요, 찬양과 성찬례의 예배를 생활로써 드러낸 것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삶이다(행 4:32).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세상을 섬기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교회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였고, 자신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다. 선교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세상의 삶으로 넓히고 적용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교회가 그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야한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동시에 선교 공동체가 된다.

6. 모든 찬양과 예배를 엮는 교회

하나님은 온 인류와 생명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며(창 12:1-3),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신다(출 19:5-6). 마찬가지로 교회는 온 생명에게 축복하는 예배를 열도록 부름 받은 기관이다. 교회는 지친 생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골

3:16).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온 세계가 예배드리도록 부르고 훈련하는 곳이다. 교회가 주관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안식일이 회복되어, 온 세계는 복과 거룩을 누리며 (창 2:1) 주께서 내신 본래의 질서대로 움직이며 생명세계를 이룬다(창 8:22).

7.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예배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세우신 생명들의 대피소이다. 그런 뜻에서 교회가 이 땅의 한 지역에 있다는 것과 한 건물로 있다는 것은 그 뜻과 차원이 다르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이유는 그 건물이나 제도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이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대하 6:21, 시 22:24, 94:14).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못 생명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신다(창 19:29).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은 그 땅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예배드리는 그 원래 사명에 충실해야 하며 건물과 제도를 넘어 늘 신령한 주님의 집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해야 한다.

8. 예배는 구원의 잔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활동을 담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베풀

푸신 구원활동의 요약이다. 이 구원활동의 중심에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있다. 이를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고, 예언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예배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증언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면서 구원을 경험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이 자리는 죄를 묻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를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요, 그러기에 즐거운 잔치자리이다.

예배는 이중의 잔치이다. 잔치의 주인이신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치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잔치에서 구원을 받아 새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쁘고 복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9.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는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 관계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요, 생명이 없는 것이다(시 115:4-8). 이런 우상을 섬기면 사람은 자신의 참 정체를 알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죄짓고 악을 일삼는 자신을 본모습으로 잘못 알게 된다(롬 1:18-32).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요 4:24).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그의 피조물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 그분께서 자신의 형상을 주시고,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 있다(잠 1: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본모습을 바르게 안다.

10. 예배는 부르심과 은총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열리는 은총의 구원 잔치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회와 그릇된 제도를 만들어 탄식하고 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롬 8:18-22).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헐벗었기 때문에 거룩하시며 높으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품을 여시고 가련한 우리들을 부르신다. 값없이 구원의 양식을 얻게 하신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신 7:7, 8) 하는 말씀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왔다”(막 2:17)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총임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고, 불러주신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새 존재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11. 예배는 응답과 생명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들은 기꺼이 응답해야 한다. 세상의 많은 선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귀한 일들이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부름 받아 나오는 일은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다른 일을 핑계 삼아 거절할 수 없다(눅 14:18-20).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생명의

빛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맞아들일 수도 있고, 맞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요 1:1-13).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는 오직 “예” 하는 순종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나듯이 구원을 받고(사 56:12), 가시나무와 짙레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와 화석류가 자라듯이(사 55:13) 영화롭게 된다.

12. 예배는 생명의 계약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계약이 맺어지는 놀라운 자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법으로 조약을 맺듯이,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창 15:1-17),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창 15:18).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담긴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자기의 소중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출 19:5, 6).

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에게 주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새 구원의 때를 여시고(요 4:23, 24),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며(요 13:31-35), 지금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 계약의 자리로 부르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몸소 자기의 몸과 피를 언약의 증표로 내세우셨다(막 14:22-24, 고전 11:23-26).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롬 6:4), 성찬례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확인한다(엡 2:19).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계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

로 주신 것이다. 하지만 이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 서로의 것이다. 이 계약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영화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13. 성령의 임재

하나님께서 먼저 잃은 자를 몸소 찾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자기를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 또한 하나님 자신이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배도 몸소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통해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온전하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다(롬 8:15, 16).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어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간구하신다(롬 8:26, 27).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며 시작한다.

14. 하나님 나라와 섬김

예배 안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된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삼아주신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 이와 같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귄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위한 사명을 주신다.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시고(마 4:18, 19),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다(마 5:1, 2). 그들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마 16:13-17), 부활 생명을 목격하게 하시

고(마 28:16, 17), 선교의 사명을 주신다(마 28:19, 20). 따라서 예배는 ‘보냄’으로 이어진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못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신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모임과 더불어 세상에 보냄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섬기는 생활을 함으로써 온전하게 된다.

제3장 예배의 원리

15.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심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고전 11:23-25). 예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피조물 위에 풍성한 생명을 내리시기 때문이다(시 147:12-14).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의 주관자시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참 하나님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체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배는 일정한 틀을 갖는다. 우리는 이 틀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가장 잘 드러내도록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일마다 교회력에 맞추어, ‘모임·말씀·성찬례·보냄’이라고 하는 구성으로 엮어서 하나님의 구원활동을 담은 성경일과의 말씀을 가지고 드린다.

16. 감사와 응답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은총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

행동이요 응답 행위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벗기시고 새 존재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죄의 용서와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함으로써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과 대화가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요 4:24) 드려야 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막 12:30). 이러한 점에서 예배는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이다. 그러기에 예배 중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창 22:16), 헌금이나 예물을 헌신의 표시로서 하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드림으로써 부르심에 응답한다.

17. 예배의 표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가짐뿐 아니라 언어와 몸짓도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성과 가락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지으시고, 민족마다 독특한 개성과 영성을 가지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시 117:1, 2).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으로 이끄는 음악과 춤을 포함한 예술과 상징을 예배에 활용할 수 있다.

18. 예배를 통한 구원과 창조

주일예배는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축제이다.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공동체의 행위로 시작한 것이 오늘의 예배이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기를 가득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시 51:10-12).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는 성찬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활동이며 창조활동

이다. 이 부활의 생명이 예배를 통해 온 피조물 위에도 주어진다. 마침내 온 피조물이 드리는 참 예배인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계 4:1-11)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새 하늘 새 땅을 맞이한다(계 21:1-4).

19. 예배를 통한 화해

예배는 삼위일체 친교 안에 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총 사건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 성령께서는 예배 안에 오셔서 예배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에 나아올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보자이시다(히 9:15).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예배 안에서 서로 참 사귀음을 갖는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이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스도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과 이 세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온 생명과 더불어 온전한 평화의 사귀음을 갖는다.

20. 성경을 통한 말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성경과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이 성경에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다.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신약성경의 기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막 14:49). 신약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한다(요 1:14).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구원 활동을 담고 있으며, 말씀을 통해 앞으로 그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기쁨을 미리 누리는 잔치이다. 따라서 성경은 예배의 토대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닫는다.

21. 설교를 통한 말씀

설교는 사람의 말로써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활동을 지금 이곳에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하여 전하신다.

성령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증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도록 하신다.

설교는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요 1:29-31),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한다. 우리는 설교를 머리와 가슴으로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새길 뿐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격하며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 것을 결단한다.

22. 성례전을 통한 말씀

성례전은 몸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곧 몸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례전은 행동으로 참여하는 예배로써, 성경과 설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신 세례와 성찬례, 이 두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의 구원과 은총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다.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
의 말씀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귀로 들은 말씀을 몸과
마음, 온 존재로 깨닫게 하며,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한다.

제4장 예배의 순서

23. 모임

예배의 첫 번째 차례는 ‘모임’이다. 하나님이 몸소 오셔서, 자신
이 손수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우
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믿음
의 공동체로 모인다.

회중이 모이면, 회중은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 인사를 나눈
다. 회중은 조용히 기도하거나 묵상을 할 수 있다. 또는 그 절기나
그 주일의 성경일과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 때 연주하거
나 들려주는 음악은 예배자를 하나님과 하나님나라에 나아가도록
돕는 것으로 한다. 그 날의 예배 진행에 꼭 필요한 안내를 이 때 간
단히 설명할 수 있다.

‘모임’ 부분의 순서는 예배에 부름, 모임 기도, 찬송 또는 시편 찬
송, 죄의 고백과 용서, 평화의 인사, 영광송으로 이루어진다. 세례
예식은 이 부분에서 할 수도 있고, 뒤의 ‘말씀’ 부분에서 말씀에 대
한 응답의 순서로서 진행할 수 있다.

24. 말씀

예배의 두 번째 차례는 말씀이다. 세계 교회의 교회력에 맞추어
마련된 성경일과에 따라서 그날의 성경 본문들을 낭독하며, 이 본
문들을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선포한다. 성경을 낭독하는 사이 사
이에 회중이 말씀 응답송을 부르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적인 결단행위가 뒤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조나 신앙고백, 세례 예식, 간증, 사귄, 세상과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같은 것들이다.

25. 성찬례

예배의 세 번째 차례는 성찬 예식이다. 성경과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몸으로 듣고 받는 말씀의 시간이다. 또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시간이다. 이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헌금과 예물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에 쓰이도록 바친다. 성찬 예식의 순서로서 처음인 봉헌은 산 제사의 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책임적인 예배행위이다. 성찬례를 생략한 예배에서는 봉헌 시간이 곧 성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봉헌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한다.

우리는 성찬 예식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대받아 참여한다. 떡과 잔을 차려놓고 기도 드린 다음 축사하고, 이 거룩해진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와 신비한 일치를 이룬다. 이 성찬 예식을 생략할 경우에는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을 표현할 수 있다. 이웃과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여도 좋다.

26. 보냄

찬송과 기도, 축복기도와 보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려고 세상으로 보내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받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이 풍성해졌으므로, 신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섬김의 삶을 살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선교를 위임받고 떠나는 믿음의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나눈다. 교회의 활동에 대한 안내를 앞 순서에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할 수 있다.

제5장 성례전

27. 성례전의 의미

성례전은 행동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몸으로 받는 말씀의 예식이다. 우리는 이 성례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성례전은 듣고 깨닫는 예배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살 것을 온 몸으로 결단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성례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생명에게 열려 있으며, 성례전은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은총의 예식이다.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례 두 가지이다.

세례식과 성찬례를 선교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세례식은 그리스도인의 만인 사제직을 위한 안수식이므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 성찬은 이 만인 사제직의 안수와 계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축제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선교에 동참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을 통한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축제이다. 이러한 뜻에서 세례와 성찬례, 이 두 성례전은 선교의 차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하나님 나라 예전이다.

28. 세례의 의미

세례는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예전이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에 이른다(롬 6:3). 그러므로 세례는 낡은 자신과 죄에 젖은 자신을 온전히 물에 씻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두나는 예전이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펼치시는 성령의 활동이다(막 1:9, 10).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롬 6:4),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엡 4:3-6).

29. 세례의 집례

성례전으로서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정기적으로 베풀며, 예배 시간에 모든 회중이 참여한 곳에서 베풀는다. 세례는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예배에서 말씀의 차례에 이어서 베풀는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한번만 베풀는다.

30. 어린이 세례

어린이 세례에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기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선택하셨다는 특별한 뜻이 있다(사 49:1, 5). 어린이 세례는 약속의 예식이다. 어린이의 부모는 앞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회중도 이 아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 아이를 감싸춤으로써 함께 신앙적인 양육의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한다.

목사는 어린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 부모들을 불러서 어린이 세례의 뜻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오는 책임을 교육한다. 세례를 받은 어린이는 교회의 세례교인 명부에 기록하고 당회가 책임져야 할 교인으로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이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고

백하는 견신례를 마치기 전에는 성찬례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견신례 이전이라도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성찬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1. 견신례

견신례는 입교 예전으로서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라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의 예전이다. 견신례는 어린이 세례 때 다하지 못한 어떤 것을 완성시키는 예전이 아니다. 어린이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견신례는 오로지 교회가 어릴 때 세례 받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견신례를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면, 교회는 이들의 고백을 확증한 다음 이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기도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교회 모든 회중 앞에 선포한다. 그 다음 교회는 그에게 교인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한다. 견신례는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는 의식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견신례에 이어서 성찬례를 베풀는다.

32. 어른 세례

어린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교인이 되려고 하면, 어른 세례를 받아야 한다. 어른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예비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과 교인으로서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알맞은 절차와 당회의 추천을 거쳐서 공중예배의 말씀의 순서에 이어서 세례를 베풀는다.

세례의 성례전은 교회 전체 행위로서 회중이 참여한 가운데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공중예배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례를 베풀 수 있다. 특별히 환자들을 위한 경우에 이런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세례는 참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깊이 갖게 하는 예식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의 예식이기도 하다.

33. 성찬례의 의미

성찬 예식은 행동으로 하는 다른 한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삼고, 성찬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적인 욕구를 채워 주신다(요 6:53-58).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는 이 성찬 예식은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예전이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만찬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는 기념 예식이며, 그 사건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생생하게 재현하는 예식이다. 또한 축사한 떡과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신비의 예식이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기리는 예식이 아니다. 주일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식사로서 감사의 예식이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또 성도 사이에 참 교제가 일어나는 생명나눔 예식이다.

성찬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한 보냄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찬례는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하나되기 위해 돌아오는 모임의 성격을 갖는다. 성찬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아가고 다시 모이는 일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게 된다.

34. 성찬 예식의 집례

성찬 예식의 의미를 말로써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직접 계시하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눅 24:32). 성찬 예식은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항상 공중예배의 한 부분으로 행해야 한다.

성찬 예식은 앞날에 있을 메시아 왕국의 잔치를 미리 누리는 희망의 축제이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교회가 규정한 초대가 아니라 모두에게 개방된 초대, 즉 주님의 초대에 강조를 둔다. 또한 온전한 예배는 말씀과 함께 성찬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성찬례를 베푸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다.

35. 성령과 성찬 예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성찬례에서는 더욱 성령이 강조된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옛 사건의 기념이 지금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의 사건이 된다. 성령은 합법적인 자격과 권위를 가진 집례자가 집행하는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서 손수 주관하시는 예식이 되게 하신다. 성령은 성찬 예식으로 세상 끝날의 메시아 잔치를 앞당겨 누리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집례자는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원하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진행한다.

36. 성찬 예식의 순서

이 성찬 예식의 순서는 네 차례로 이루어진다. 이 순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제정의 말씀(고전 11:23-26)과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 기록(마 26:26-29, 눅 22:15-20)에 따른 교회 전통에서 나왔다.

첫째 차례는, 성찬을 차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거룩한 만찬상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예식을 맡은 사람이 성찬 예물을 준비한다. 성찬 예물을 미리 차려 두었다가 상보를 걷고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리 차리지 않고 회중이 찬송하는 가운데, 봉헌물과 함께 성찬 예물을 앞으로 가지고 나와 상 위에 차릴 수도 있다. 그것은 성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예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차례는,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성찬 예물을 차리고, 성찬례 제정의 말씀을 전한 다음 감사기도를 드린다. 그리스도교 전통으로 내려오는 감사기도의 유형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반영하도록 한다.

셋째 차례는, 떡을 떼고 잔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께서 떡을 몸소 떼시고 잔을 높이 드신 것처럼, 성찬 예식 집례자도 회중 앞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따라 그 잔을 높이 들어 회중들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한다. 그러나 부활 후의 성찬 예식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넷째 차례는,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따라서 성찬 예식은 슬픈 기념예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축하하는 기쁨의 잔치이다.

떡과 잔 나눔이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다.

37. 성찬 예식과 회중의 참여

성찬 예식은 행동으로써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회중 전체가 참여한 예배의 자리에서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당 밖에서 베풀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경우의 성찬 예식을 사사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의 공중예배를 연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뜻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하도록 한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찬 예식을 거듭 되풀이해

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한다.

제6장 회중 모임

38. 주일예배와 다른 신앙 모임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 드리는 주일예배는, 교회 안팎에서 행하는 모든 모임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주일예배는 부활절 축제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축하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성찬례를 베푼다. 이 주일예배에서는 말씀과 성찬례를 동시에 선포하고 베풀도록 한다.)

주일예배와 그밖의 신앙적 모임은 크게 ‘주일예배’와 ‘매일기도’ 그리고 ‘상황예식’으로 나눈다.

39. ‘매일기도’

‘매일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대 교회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내려 온 교회의 기도 전통이다. 주일예배 이외의 모든 신앙 모임들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매일기도’를 드리도록 한다. ‘매일기도’의 시간은 아침과 한낮, 저녁시간으로 정한다. 이 기도 시간은 일 년간 하나님 나라를 순례하도록 엮어 놓은 교회력의 틀 안에 담겨 있다.

이 ‘매일기도’를 드림으로 주일예배와 그 외의 모든 신앙적인 모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주일과 평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모임 중심의 신앙과 함께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일상적인 영성

을 키워 갈 수 있다. ‘매일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기도이지만, 기도와 시편과 성경과 찬송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임에서든지 이 ‘매일기도’ 형식으로 시작하고 끝맺을 수 있다.

40. 새벽기도 모임

새벽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훈련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해 왔다. 본래는 수도원 생활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해 뜨는 시간에 맞추어 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

이 새벽기도는 예배를 위한 모임이기보다 기도를 위한 모임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날에 주어진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며, 그날의 할 일과 활동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런 점에서 새벽기도는 ‘매일기도’의 아침기도를 그 틀로 해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1. 주일 저녁 모임

주일 저녁(오후) 모임은 교회공동체의 친교와 훈련을 위한 중요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주일예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신앙적 삶을 위하여 훈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이때 교회의 각 기관이 주최하는 찬양예배나 헌신예배, 그리고 교회의 선교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간을 그리스도와 이 세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부하는 신앙교육 시간으로 삼아도 좋다. 이 때 모이는 시간에 따라 ‘매일기도’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42. 수요일 저녁 기도 모임

수요일 저녁 기도 모임은, 새벽기도 모임과 마찬가지로 중세기 수도원 생활의 하루 일과를 이어받은 신앙모임으로서, 역시 그리스도

인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좋은 기회이다.

간단한 기도 모임으로서,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그 뜻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위한 양육모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시작과 마지막에 저녁기도 형식으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매일기도’의 틀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43. 구역 모임

구역 모임은 교회의 일정한 지역별 모임으로서, 주로 기도와 친교를 위한 신앙 모임이다. 그러나 지역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삶과 봉사를 통해 이 구역 모임을 함께 기도함으로 친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같이 일하는 영성이 풍부한 모임이 되도록 하며, 이 모임 역시 모이는 시간에 따라 ‘매일기도’의 틀로서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역 모임이 그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작은 선교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44. 그 밖의 상황에 따른 현장 모임

정기적인 기도 모임 외에도 필요에 따라 특별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모임 가운데는 개인의 신앙과 교회공동체의 친교가 자라게 하는 모임도 있다. 이런 모임일 때도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선교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 속한 각 기관의 모임도, 그것이 정기적인 것이든 연례적인 수양회이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회원의 신앙에 도움이 되며, 교회의 선교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범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특별 모임도 되도록 ‘매일기도’의 틀로 드리는 것이 좋다.

제7장 상황예식

45. 상황예식의 의미와 가치

‘주일예배’와 ‘매일기도’ 이외에 여러가지 교회 안팎의 예식을 ‘상황예식’으로 다듬어 베풀 수 있다. 그리스도교의 예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공동체의 모든 삶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새기고 결단하게 한다. 상황예식은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고 삶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한다.

상황예식은 그 기능 면에서 주일예배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상황예식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보냄을 받는 순서로 진행한다. 그러나 성찬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신앙적인 내용의 예식으로 채운다. 상황예식은 믿음예식, 희망예식, 사랑예식, 축복예식, 목양예식으로 분류해서 여기에 모든 예식을 담는다.

46. 믿음예식

믿음예식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결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식이다. 교역자의 부름과 관련된 예식(목사안수, 임직, 취임, 전입 등)을 포함해서, 신도들의 부름과 관련된 예식(장로 임직을 포함해서 그 밖의 평신도의 직분, 임명, 신입교인의 환영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교회공동체의 부름과 관련된 예식들(교회 창립, 노회나 총회의 임원 취임)은 물론 예배당을 포함한 그 밖의 건축과 봉헌 예식을 포괄하는 예식들이 있다.

47. 희망예식

희망예식은 죽음과 관련된 예식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희망을 선포한다. 죽음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 생명을 간직하는 시간이기때문에 희망의 시간이다. 장

례와 관련된 임종, 입관, 장례, 하관예식을 포함해서, 유가족 위로, 화장, 이장, 첫 성묘, 탈상예식, 그리고 추모와 관련된 모든 예식이 여기에 속한다.

48. 사랑예식

사랑예식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을 강조하는 예식이다. 약혼과 관련된 예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결혼예식과 결혼 인정예식, 국제관계에서 한쪽 나라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을 재확인하는 예식, 그리고 은혼예식과 금혼예식을 포함한 결혼 기념예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49. 축복예식

축복예식은 복음의 빛 속에서, 삶의 여러 상황들을 신앙적으로 승화시킨 예식이다. 돌, 생일, 회갑과 같은 생애 주기와 관련된 예식들, 그리고 새집을 짓고, 이사하고, 개업하는 여러 가정생활과 관계된 예식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생업과 관계된 예식들과 농촌이나 어촌 등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화적인 예식들도 이 예식에 해당된다.

50. 목양예식

축복예식에 담을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이나 그 가정을 위해서 교회공동체가 베풀 수 있는 위로의 예식들이라 할 수 있다. 입원을 전후한 환자나 사경을 헤매는 중환자를 위한 예식이 있다. 이혼을 포함한 개인적인 위기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도, 비극적인 죽음에 직면한 개인과 가족을 위한 기도,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교우들을 위한 기도 등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